물가폭등 원인과 대응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1. 물가 개념과 계산법
2. 물가상승 원인
3. 고물가=고금리=고환율
4. 인플레이션 대책

물가 개념 이해

- 물가(物價) : 물건에 대한 가격, 평균 가격
- 물가 상승 : 인플레이션, 물가 하락 : 디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3% 이상), 화폐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
- 기대인플레이션 : 경제주체들이 예상하고 있는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사재기, 제품가격 인상 등 악순환(설문조사)
- 한국의 물가지수 종류
- 소비자물가지수 : 도시가계의 일상생활, 상품/서비스 가격 변동 측정,
  40개 도시, 458개 품목
- 근원물가지수 : 일시적 충격(가뭄, 홍수, 석유파동) 의한 변동 심한 품목
  제외한 지수, 장기적/기초적 물가추세, 401개 품목(농산물, 석유류 제외)
- 생활물가지수 : 일반소비자들 자주 구입 품목, 기본 생필품 144개 품목

미국 CPI와 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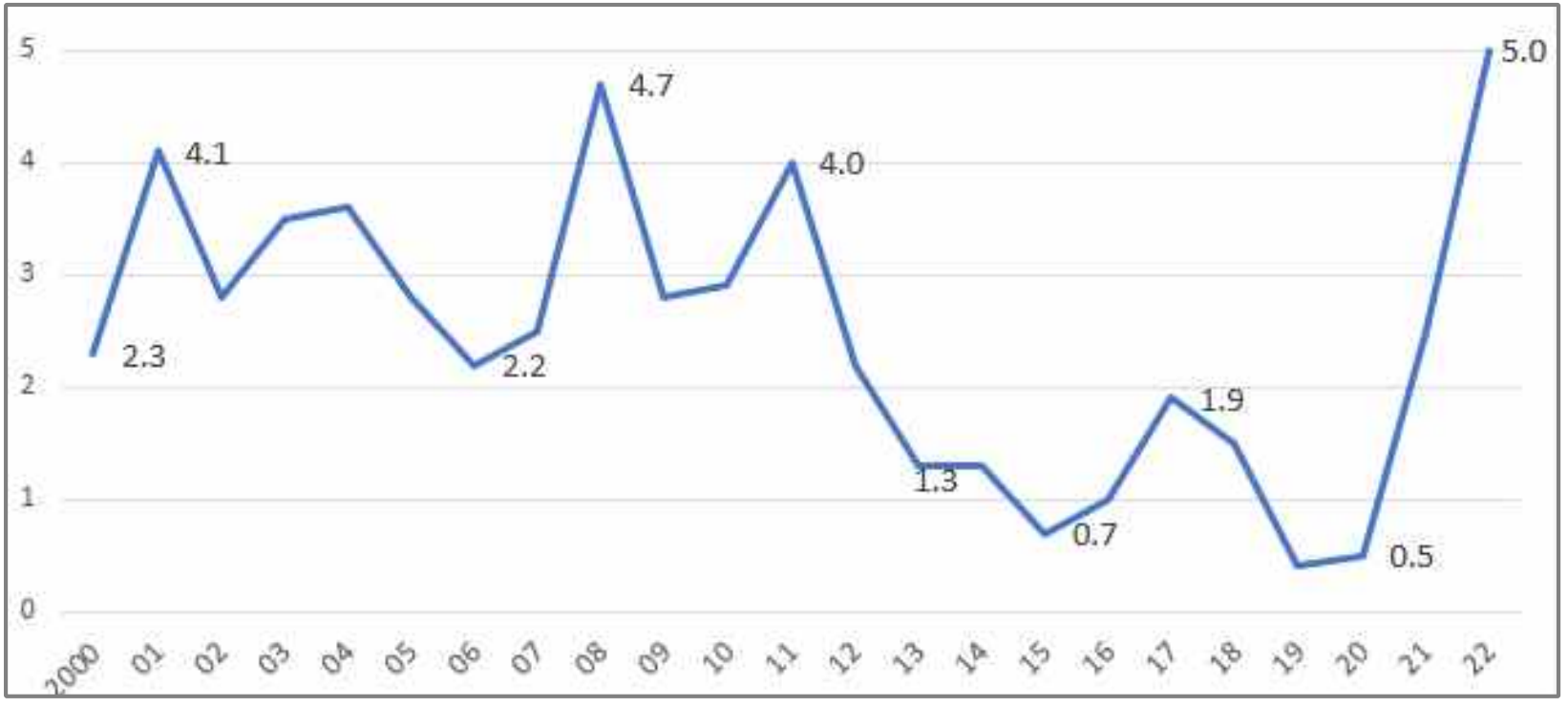
CPI(소비자물가지수)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노동부	상무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가 지수	연준의 인플레 2% 목표 달성 기준 (근원 PCE)
도시 거주자가 직접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 (주거비가 가장 높은 비중)	정부가 가계 대신해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도 포함 소비 물가의 전체 평균 상승도에 대한 미국 전역 지표

근원(코어)은 가격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제외

	CPI		PCE	
2022	종합	근원(코어)	종합	근원(코어)
3월	8.5	6.5	5.2	5.2
8월	8.3	6.3	6.2	4.9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1998년 10월 7.2% 최고치
- 2022년 7월 6.3%, 8월 5.7%, 9월 5.6%
- 그래프 2022년은 1~9월까지 평균



458개 품목(물가지수)

품목별	2022.03	2022.08
총지수	106.06	108.62
농축수산물	109.89	116.74
곡물	102.59	95.47
쌀	101.90	92.80
현미	105.34	101.34
찹쌀	101.56	95.74
보리쌀	102.44	108.89
콩	106.71	103.01
땅콩	105.95	106.28
혼식곡	103.52	103.72
채소 (생략)	104.37	126.83
과실 (생략)	119.25	123.50

품목별	2022.03	2022.08
축산물	113.48	120.55
국산쇠고기	110.98	109.23
수입쇠고기	127.82	129.50
돼지고기	105.75	122.47
닭고기	119.41	127.52
달걀	130.90	136.47
꿀	106.29	104.85
수산물 (생략)	102.79	103.11
전기·가스·수도	101.07	106.55
상수도료	104.72	105.22
전기료	105.39	102.00
도시가스	94.68	112.11
지역난방비	98.73	111.05
집세	102.88	103.45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 방법

$$\text{소비자물가지수} = \frac{\text{비교연도 가격} \times \text{기준연도 재화묶음}}{\text{기준연도 가격} \times \text{기준연도 재화묶음}} \times 100$$

① 개별도시 품목 지수의 작성

개별 도시 내에서의 품목 지수는 단순하게 작성됩니다. 각 품목의 기준시점의 가격과 대비한 비교시점의 가격이 품목 지수입니다.
아래에서 2020년 쌀(20kg) 평균 가격이 40,500원일 때 2021년 9월 가격이 50,500원이면, 2021년 9월 A도시의 쌀 지수는 (50,500/40,500)*100=124.69이 됩니다.

A도시의 품목별 평균가격 산출 예(쌀 20kg 경우)

기준시점가격	2020년 평균	40,500원
비교시점가격	2021년 9월	50,500원

2021년 9월 **A도시** 쌀지수 : **124.69**

기준시점가격	:	기준시점지수	=	비교시점가격	:	비교시점지수
40,500원	:	100.00	=	50,500원	:	X

② 전국 품목 지수 작성

개별 도시에서 품목 지수가 작성되면 전국의 품목 지수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 품목의 도시별 가중치가 필요하게 되며, 각 도시에서 계산된 개별 품목지수에 대해 도시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각 도시의 품목 지수를 도시별 가중치로 곱한 전체 합을 전체 도시의 가중치로 나누어 주면 전국 품목 지수가 작성됩니다.

전국 품목 (쌀)지수의 작성

쌀	지수	가중치
A도시	124.69	500
B도시	125.30	200
C도시	124.50	300
계	124.76	1,000

$$\text{전국 쌀지수} = \frac{A\text{지수} \times A\text{가중치} + B\text{지수} \times B\text{가중치} + C\text{지수} \times C\text{가중치}}{\text{전도시 가중치}}$$

$$= \frac{124.69 \times 500 + 125.30 \times 200 + 124.50 \times 300}{1{,}000}$$

$$= 124.76$$

③ 전국 물가지수 작성

전국 쌀지수가 계산되는 방법대로 햄버거, 휘발유 지수도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쌀, 햄버거, 휘발유 지수에 각품목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전국 물가지수가 산출됩니다.
즉, 전국 품목지수에 품목별 가중치를 곱한 값을 전체 가중치로 나누어 하나의 숫자로 종합하여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매월 작성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

전국 물가지수의 작성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예

	9월	가중치
쌀(20Kg)	124.76	400
햄버거(1개)	102.85	200
휘발유(1L)	109.35	400
계	114.21	1,000

$$9\text{월 소비자물가 지수} = \frac{124.76 \times 400 + 102.85 \times 200 + 109.35 \times 400}{1{,}000} = 114.21$$

인플레이션의 역사

- 보통 전쟁 비용,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 국채 발행 – 통화 남발,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 실질소득 감소, 취약계층 저항으로 정권 교체
  자산계급도 저물가 상태가 자산가격(부동산, 증권 등) 상승에 유리

- 1차대전 패전 독일, 황제 쫓겨나고 바이마르 공화정(혁명정부),
- 국민소득 10%의 배상금, 경기부양, 1924년 1조 마르크 지폐 발행
- 초인플레이션 발생, 사회혼란으로 선동가 히틀러 집권, 파시즘.

- 197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비 달러 남발, 오일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미국 등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를 넘음

- 볼커 쿠데타 : 1978년 한방에 4%p 금리인상
  1980년대 20%까지 기준금리 상승
  산업자본가+노동자 : 금리생활자(금융,토지)
  금융자본 승리, 신자유주의 도래
  경기침체, 줄도산, 대량해고, 90년대 호황기

물가상승 원인(경제학파)

- 총수요 증가 :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증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
- 총공급 감소 : 원자재, 곡물 비용상승.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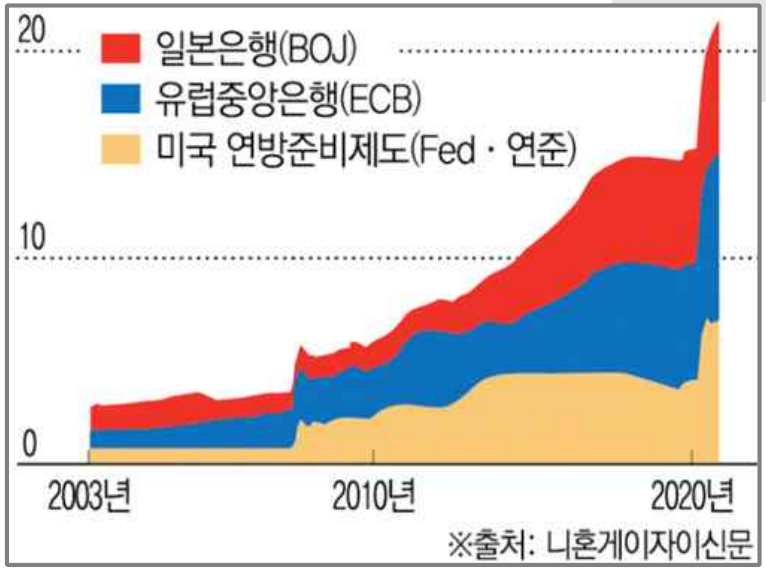
- 신고전학파 :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총수요 억제
  긴축재정, 실업 증가.

- 케인즈 안 : 유동성 풀려도 돈이 자산시장(부동산, 주식 등으로 축장)으로 숨어버리면 물가상승 없음, 통화정책(제로금리), 양적완화로 풀린 돈은 일반소비시장으로 풀리지 않음.
  현재 인플레이션 원인은 외적 공급측 요인이므로 금리인상해도 효과 없음. 재정정책으로 취약계층 지원.

- 마르크스학파 : 양적완화 자산가격 상승 등은 장기적으로 일반소비시장으로 풀림 + 공급측면은 단기적 요인.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 해법은 없음, 주기적 공황으로 해소.
  (고금리로 한계기업 정리, 실업대란, 가계부채 파산, 금융시스템 붕괴)
  파국 이후 다시 회복.
  사회주의는 상품량과 통화량(화폐)이 균형

중앙은행 양적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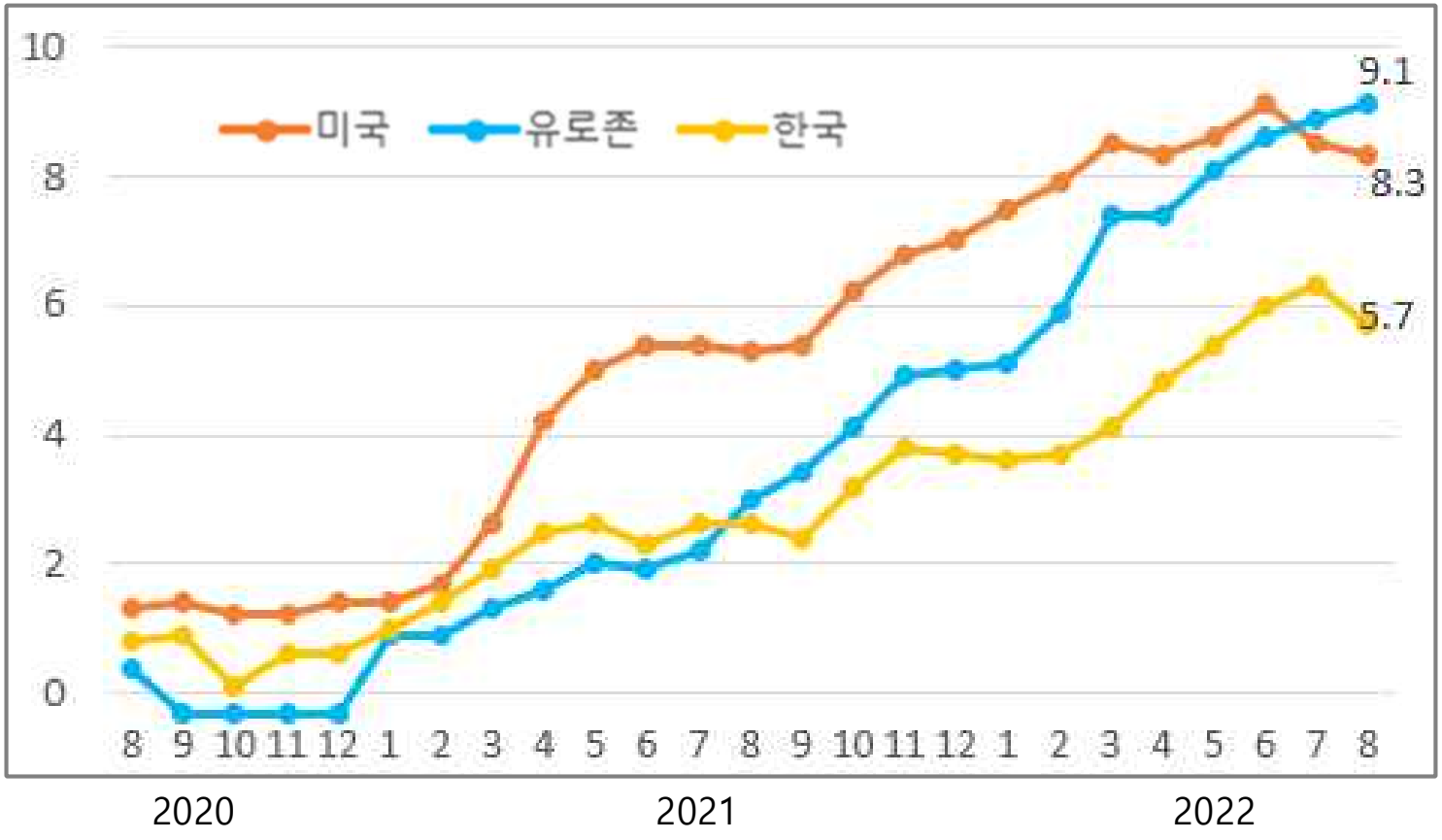
주요국 중앙은행 자산 규모



물가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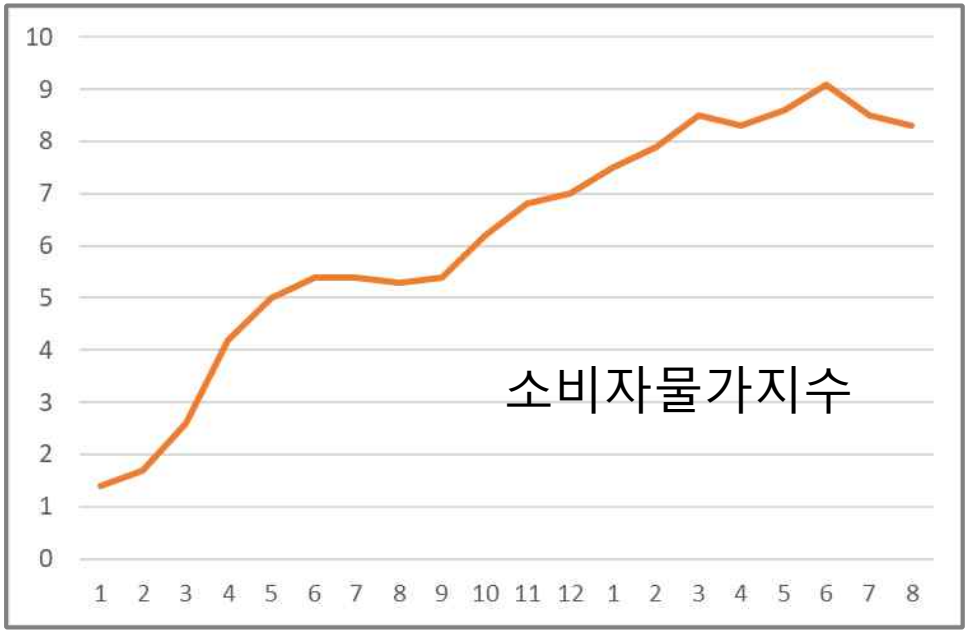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상승률(%)

1. 양적완화, 제로금리 등
2. 우크라 전쟁, 원자재, 핵 사용
3. 미국의 중, 러 경제봉쇄
4. 독점자본 이윤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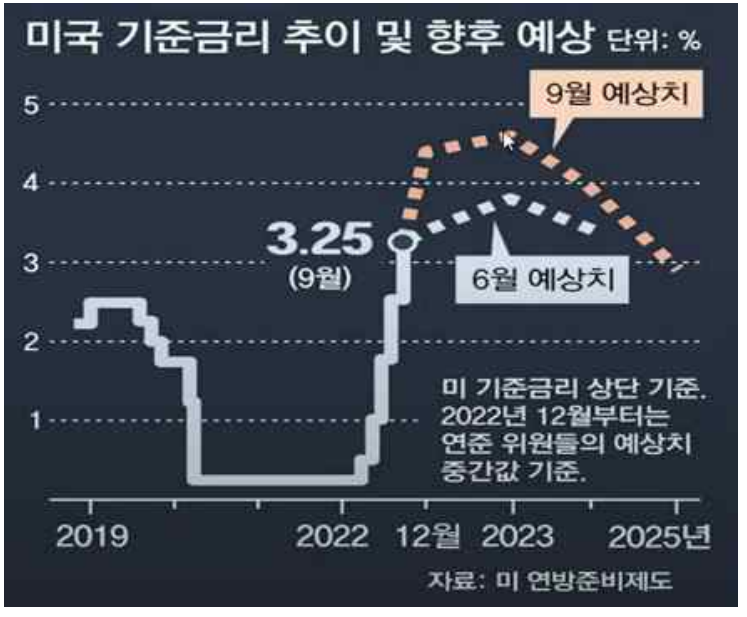
9/22 연준 자이언트 스텝
미국 신기록 4개 갱신

- 인플레이션 40년 만에 최고치(8%대)
- 금리상승 속도 30년 만에 최고치
- 달러 강세 20년 만에 최고치
- 미국 증시(S&P) 수익률 50년 만 최저 (경제침체 예상)



세계경제 질서 변화, 고금리 시대

- 인플레 발생, 돈 풀기 불가, 30년 저금리시대 마감
- 연준 파월 "물가 잡을 때까지 금리인상 계속"
  인플레 목표치 2%. 경제침체 감수
- 연준 9/22 자이언트 스텝(0.75%p)
- 점도표 발표 : 2022년말 4.4%, 2023년말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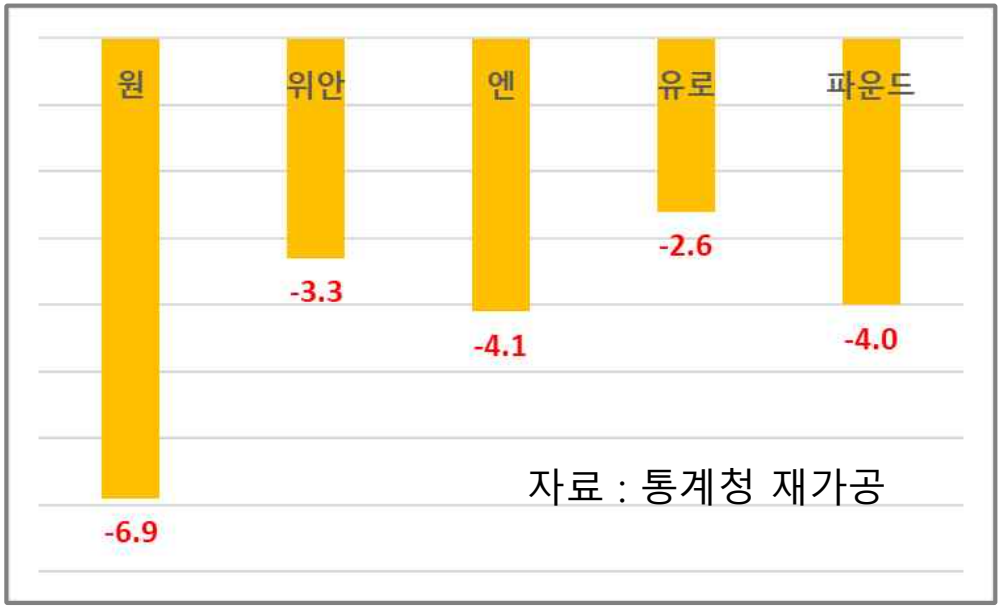
강달러와 인플레이션 수출

- 미국, 기축통화
  금리인상 = 강달러

- 미국은 고용/소비시장
  양호, 긴축정책 가능

- 주변국은 경기둔화로 경
  기부양 필요하나, 연준
  고금리 따라갈 수밖에

<8월 이후 달러 대비 통화 절하율(%)>



- 주변국 통화가치 하락, 자본이탈, 수입물가 상승 =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달러 부채 증가, 외환위기 우려

- 유동성 파티는 미국이 즐겼는데, 주변국은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짐
  미국 : 주변국에 인플레이션 수출, 싼 가격으로 수입 물품 구입, 부동산 매입

- 기축통화 다변화 추진 : 중국, 러시아, 브릭스 등 대체통화시스템 가동 중

한국경제 물가/금리/환율 3고 불황

-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 경제침체
- 환율 1,440원(20년만 최고)
- 코스피 2,010선(올 들어 9월까지 증권시장 시가총액 642조 증발)

1) 고금리 = 가계부채 위기

- 한국 가계부채(규모 및 증가 속도 1위)

- 가계부채 1,869조원 (2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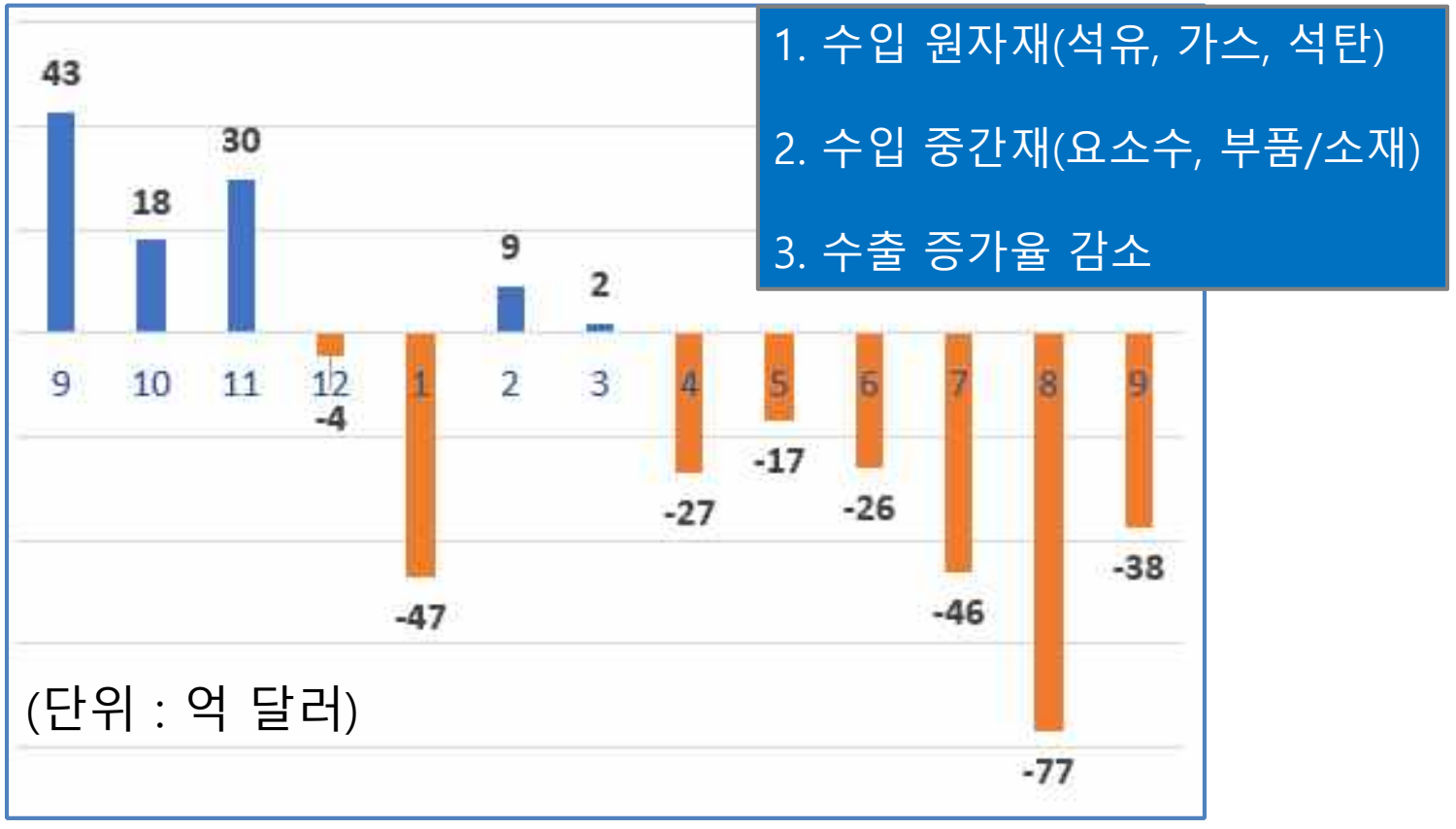
- 숨겨진 부채(제2금융권) 1,500조원 넘음
- 자영업자 부채 : 540조원
- 임대보증금 : 860조원
- 가계성 법인대출 : 266조(오피스텔, 상가)

- 다중채무자 450만명
  자영업자 연체빚탕감 새출발기금30조, 50%탈락, 신용제한, 은행책임(캠코)

- 하반기 기준금리 2.5%에서 3.5% 예상(시중대출금리 8% 도달)
- 작년 3억원, 연 4% 금리로 대출(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조건)
  대출초기 연 4% 월이자 100만원(연간 약 1,200만원)
  하반기 연 8% 월 이자 200만원(연간 약 2,400만원)

2) 고환율 = 수입물가 상승 = 무역적자

- 달러로 결제되는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 6개월 연속 무역적자(외환위기 이후 25년만)
- 1~9월까지 누적적자 30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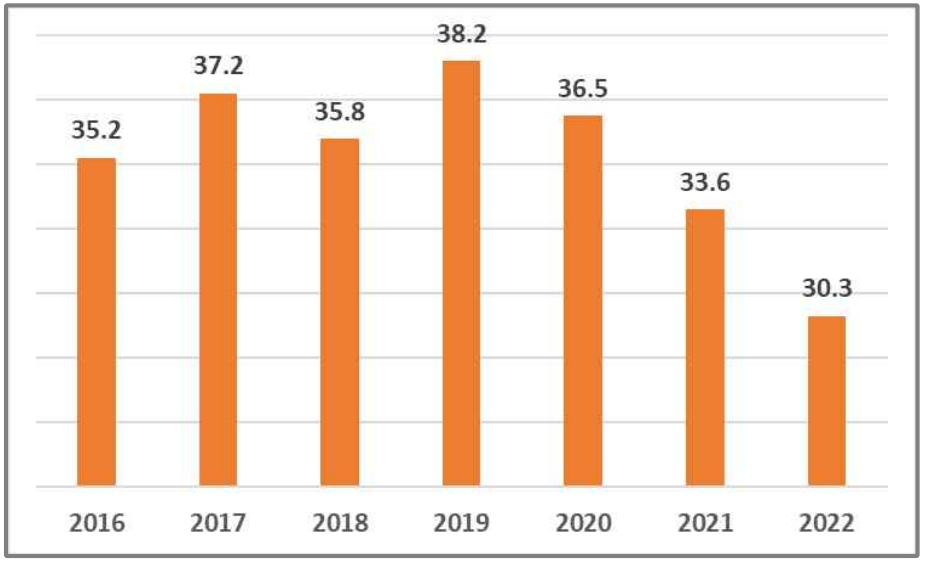
3) 고환율 = 자본이탈

- **주식, 채권시장 자본 이탈**
  외국인 올 증권시장 16조5천억 순매도
  외국인 코스피 시총 비율 30.3%로 감소
  국고채(3년물) 금리 4%(최고 상승폭)

- **주요 기업 자산가치(시가총액) 폭락**
  삼성그룹 연초 비해 170조원 감소
  SK그룹 63조원 하락
  현대차그룹 18조원 하락
  네이버, 카카오 주가 반 토막

-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 어려워, 단기 차입**(이자부담) 금리 3% 되면 소상공인 6만 도산 위험(중소벤처기업연구원, 9/28)

코스피 외국인 지분 비중(%)



고환율 원인과 대책

- 한국의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원인

1) 달러 강세 : 세계적 현상이나 나라마다 차이

2) 한국경제 리스크 심화 때문
- 한국의 최대무역국 중국경제 둔화
  (미국의 중국봉쇄, 한국경제 미래 부정적)
- 6개월째 무역적자, 수출감소(세계경제 침체로 반도체 수요 감소)
- 세계 최대 규모인 가계부채 폭발 위험, 지정학적 리스크

- 정부의 고환율 대책

- 금리인상은 가계부채, 경제침체 우려
- 외환시장 개입하여 환율 조정(추경호, '한국 엄청난 외환보유고')
  최근 외환보유고 투입했으나 환율 방어에 실패
  일본 9/22일 30조원, 영국 13일간 101조원(국채 매입)
  한국 8개월 사이 외환보유고 309억$(40조) 감소(작년 10월~올 6월)
  외환보유고 마련 위해 매년 국민세금 2조원 가량 투입

경제위기에 무능한 보수정권

- 대외의존성이 큰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위기에 그대로 노출
  (해외 원자재 값 상승, 미중 무역전쟁, 세계경제 침체, 중국경제 둔화 등)

- 경제침체 정부 버팀목 : 공공투자 고용창출, 사회안전망 제공
  (케인즈안 재정정책)

-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 선호, 민간 투자에 의한 낙수효과 기대.

- 부자감세 :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13조원).
  - 영국 부자감세(낙수효과) 발표하자 파운드화 폭락(37년 만에 최대)
  9.9% 물가, 금융부채, 경상수지 적자상태, 돈 푸는 정책은 인플레 촉발.

- 긴축재정(사회복지 축소), 민영화(요금 인상),
- 규제완화(원인 투아웃) : 이윤보장, 노동권 후퇴

- 경제침체기 노동자, 민중의 희생으로 자산계급 보호, 비상대책회의 ?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 대응

- 금리 인상하면,
  가계부채 폭발 + 소비/투자 감소로 경제침체

-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유지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 무역적자
  외국자본 이탈(주식, 채권)

- 한국은 자본시장 개방,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독립적 통화정책 불가.
  미국 금리 수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숙명.

- 미국이 금리를 조금만 + 천천히 올리는 것 해법, 미국 우선주의로 불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기존 0.25% 인상 발언 수정
  연준 결정에 전제 조건이 변했다며 0.5% 빅스텝 시사

- 투기세력 공격 가능성 : 외환 당국 달러 매도 선언,
  투기세력이 환율 급등에 차액만 결제하는 선물환 매수 가능성.

인플레이션과 진보진영의 해법(퇴진투쟁)

- 해외공급 비용상승 석유, 가스, 밀, 광물 등 : 당장 대책 없음

- 단기적 대책은 취약계층 구제
- 확장적 재정정책 : 취약계층 지원, 임금인상, 부자증세, 소득재분배
- 미 주도 경제블록 가담(44개) 중단 : 중/러 중립외교, 국익우선 정책

- 장기적 대책은 경제구조 개혁
- 수입병(수입물가 상승) 극복하고 자립경제, 남북경협
  - 에너지 100%(석유, 가스, 광물 등) : 신재생에너지
  - 곡물 80%(밀, 설탕, 옥수수, 콩 등), 소고기 63% : 식량 자립
  - 중간재(요소수, 태양광/배터리/반도체 소재) : 부품/소재 자립
- 수출의존도 줄이고 내수확대 : 한국 GDP 중 소비 50%, 수출 36%
  미국, 유럽 선진국 소비 비중 70~80%(내수 국가)
- 의료, 교육, 주거, 교통 국가책임, 무상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